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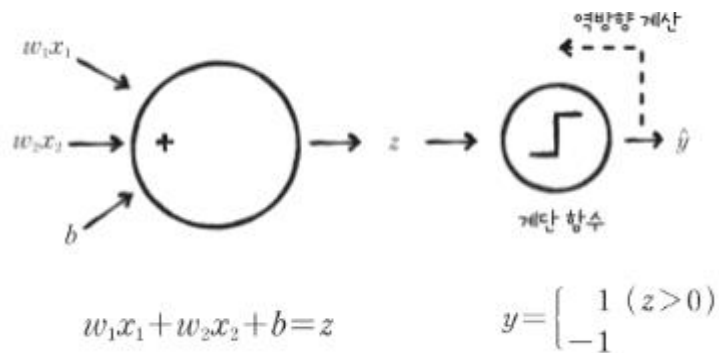
디지털 영상처리 연구실 연구보고서

정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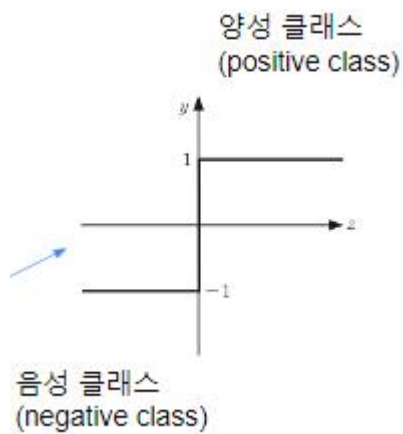
#이진 분류

퍼셉트론

우선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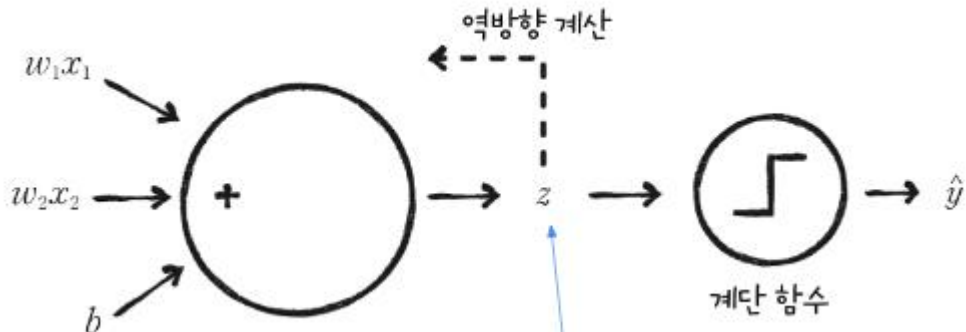


** 계단 함수 **



- 마지막 단계에서 샘플을 이진 분류 하기위해 계단 함수를 사용한다.
- 그리고 계단 함수를 통과한 값을 다시 가중치와 절편을 학습하는데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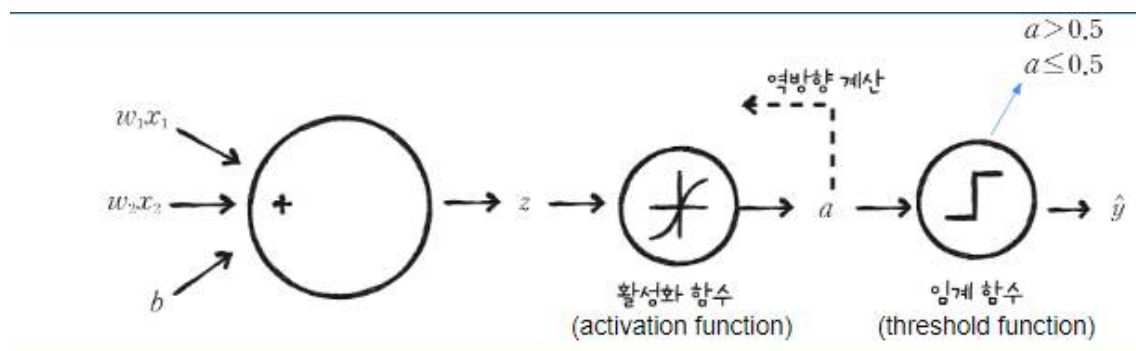
##아달린



선형 함수의 결과를 학습에 사용하는 특징이다.

##로지스틱 회귀

- 아달린에서 발전된 형태



- 중간에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값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임계 함수는 아달린이나 퍼셉트론의 계단 함수와 거의 비슷하지만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다.

만일, 활성화 함수가 선형함수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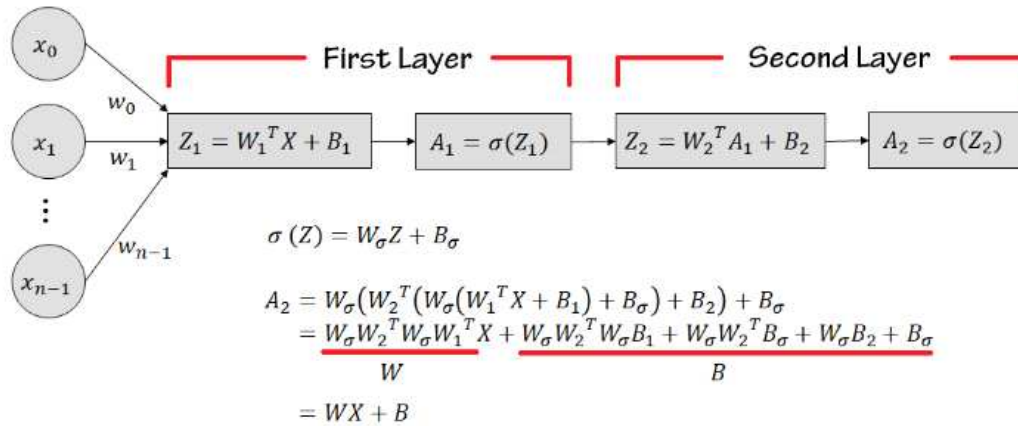
- 선형 함수 " $a = w_1x_1 + w_2x_2 + w_3x_3 + \dots + w_nx_n$ "
- 활성화 함수 " $y = ka$ "

$$\Rightarrow "y = k(w_1x_1 + w_2x_2 + w_3x_3 + \dots + w_nx_n)"$$

즉, 다시 하나의 큰 선형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임계함수 앞에 여러개의 층을 쌓아도 결국 선형 함수라서 의미가 없다.

“선형 함수라서 의미가 없다”

=>



2개의 Layer를 쌓아봤지만 X에 곱해지는 항들은 W로 치환가능하고, 입력과 무관한 상수들은 전체를 B로 치환 가능하기 때문에

WX+B라는 Single layer과 동일한 결과를 낸다.

다시말해 Deep 하게 쌓는 의미가 없어진다.

+) 그럼 비선형함수는 layer를 사용해서 쌓으면 의미가 있다는건데...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르겠음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렸다.

-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함 -

```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
def sigmoid(x):
    return 1 / (1 + np.exp(-x))

# z 값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z = np.linspace(-10, 10, 1000)

a = 3*z+2

# 첫 번째 레이어 출력
y1 = sigmoid(a)

s = 2.5*y1-1.8

# 두 번째 레이어 출력
y2 = sigmoid(s)

d = 2.2*y2-2

# 세 번째 레이어 출력
y3 = sigmoid(d)

# 그래프를 그립니다.
plt.plot(z, y1, label='Layer 1 (y1 = sigmoid(z))')
plt.plot(z, y2, label='Layer 2 (y2 = sigmoid(y1))')
plt.plot(z, y3, label='Layer 3 (y3 = sigmoid(y2))')
plt.title('Sigmoid Function through Multiple Layers')
plt.xlabel('z')
plt.ylabel('y')
plt.grid(True)
plt.legend()
plt.show()
```

```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
def linefunction(x):
    return 1.4 * x+1

# z 값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z = np.linspace(-10, 10, 1000)

a = 3*z+2

# 첫 번째 레이어 출력
y1 = linefuncti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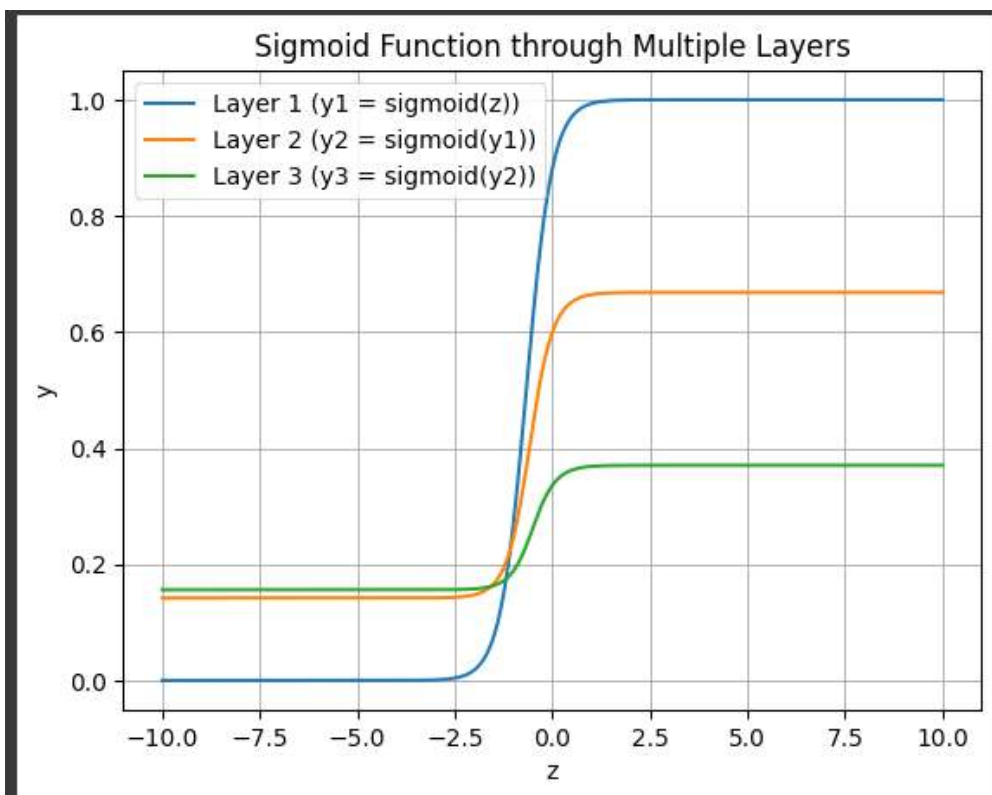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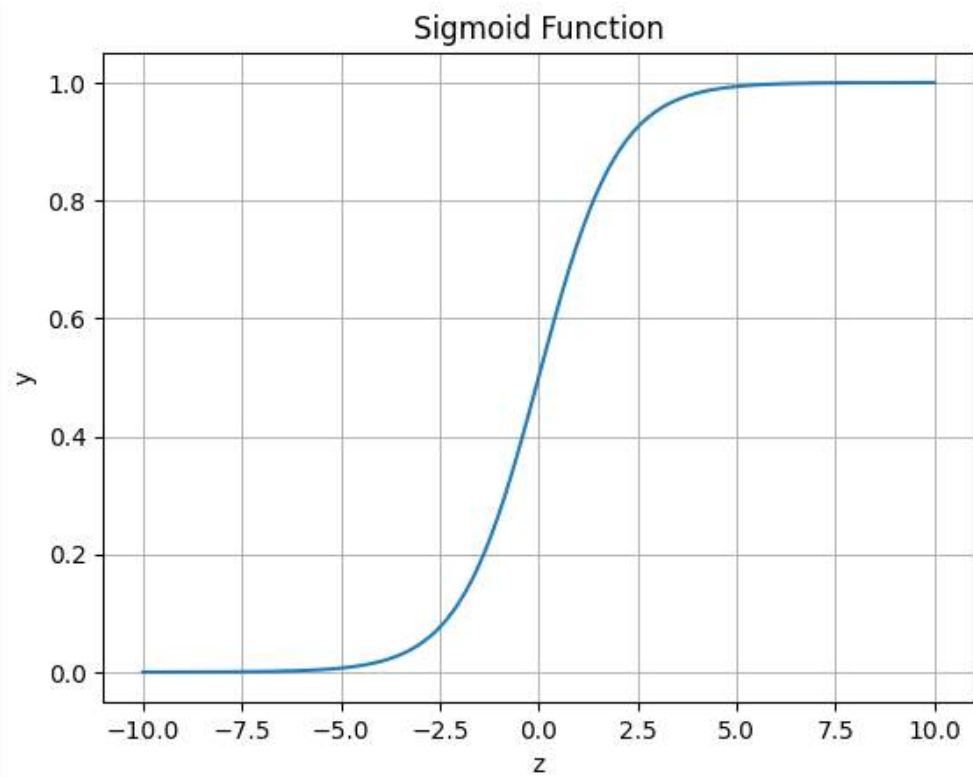
s = 2.5*y1-1.8

# 두 번째 레이어 출력
y2 = linefu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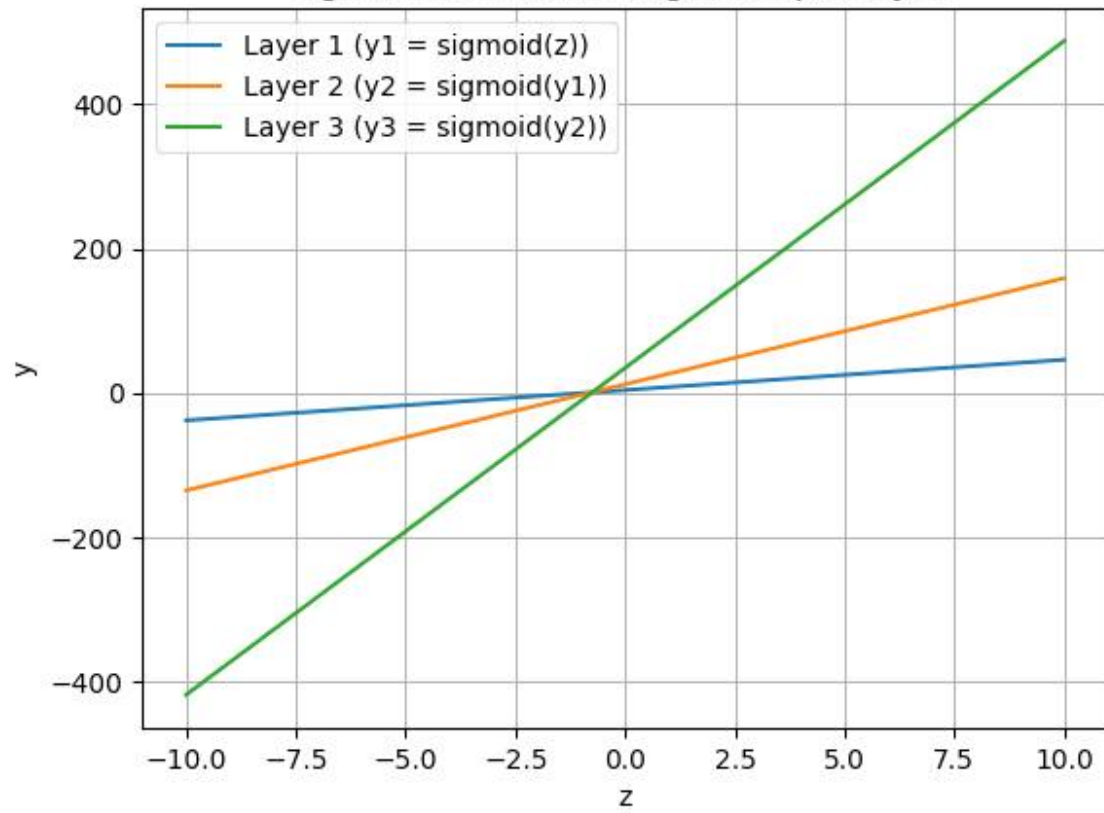
d = 2.2*y2-2

# 세 번째 레이어 출력
y3 = linefuncti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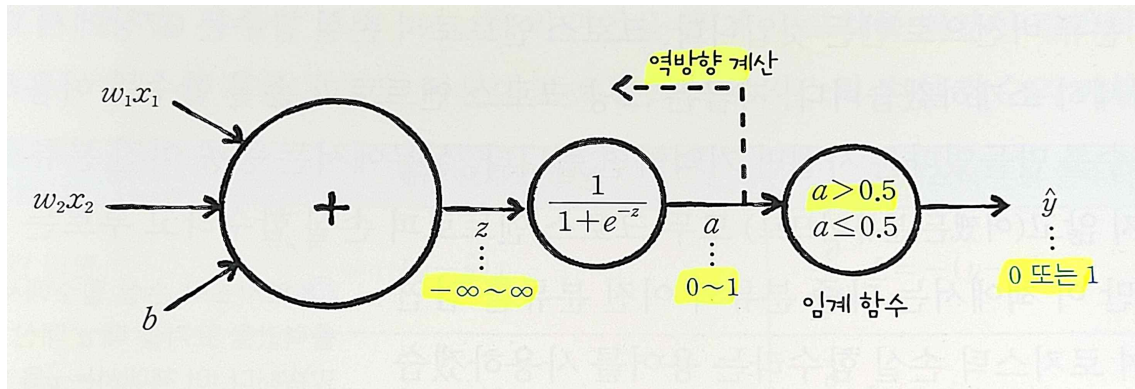
# 그래프를 그립니다.
plt.plot(z, y1, label='Layer 1 (y1 = sigmoid(z))')
plt.plot(z, y2, label='Layer 2 (y2 = sigmoid(y1))')
plt.plot(z, y3, label='Layer 3 (y3 = sigmoid(y2))')
plt.title('Sigmoid Function through Multiple Layers')
plt.xlabel('z')
plt.ylabel('y')
plt.grid(True)
plt.legend()
plt.show()
```



Sigmoid Function through Multiple Layers



로지스틱 회귀 중간정리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분류가 목표이므로,

우선 $-\infty \sim \infty$ 의 범위를 가지는 z 값을 조절해해서 활성화 함수(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

=> 확률처럼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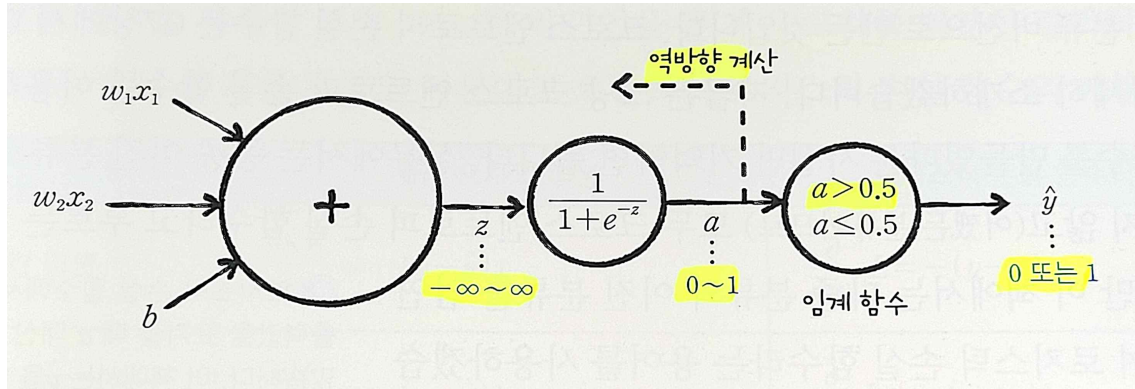
이후 임계함수를 통해 1 or 0 으로 나눈다.

=> 이제 가중치와 절편을 적절히 업데이트 해야한다.

로지스틱 손실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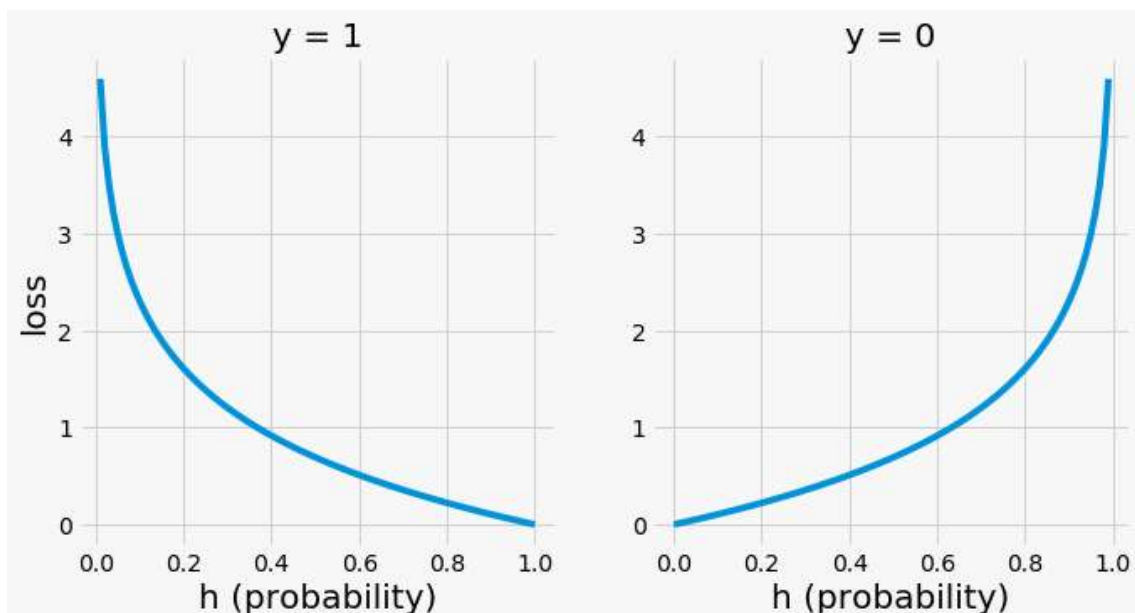
$$L = -(y \log(a) + (1 - y) \log(1 - a))$$

- y 는 타깃, 즉 실제 정답값이다. (이진분류 이기 때문에 0 or 1)
- a 는 활성화 함수가 출력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L 은,

- y 가 1인 경우(양성 클래스) : $-\log(a)$
- y 가 0인 경우(음성 클래스) : $-\log(1-a)$



=> 즉, 예측이 잘못되면 손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올바른 예측을 하면 손실이 작아지는 모델로써 경사하강법과 마찬가지로 최소화 하는 계수를 찾을 거다.

$$L = -(y \log(a) + (1 - y) \log(1 - a))$$

$$\frac{\partial}{\partial w_i} L = -(y - a)x_i$$

$$\frac{\partial}{\partial b} L = -(y - a)1$$

| | 제공 오차의 미분 | 로지스틱 손실 함수의 미분 |
|------------|--|---|
| 가중치에 대한 미분 | $\frac{\partial SE}{\partial w} = -(y - \hat{y})x$ | $\frac{\partial}{\partial w_i} L = -(y - a)x_i$ |
| 절편에 대한 미분 | $\frac{\partial SE}{\partial b} = -(y - \hat{y})1$ | $\frac{\partial}{\partial b} L = -(y - a)1$ |

=> 제공오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걸 알 수 있다. 단지 y_{hat} 에서 비선형함수인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값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가중치(w)와 절편(b)를 업데이트 하는법

선형회귀와 마찬가지로 가중치에서 손실함수를 가중치에 편미분한 값을 빼면된다

$$w_i = w_i - \frac{\partial L}{\partial w_i} = w_i + (y - a)x_i$$

$$b = b - \frac{\partial L}{\partial b} = b + (y - a)1$$

예시

```
class LogisticNeuron:

    def __init__(self):
        self.w = None
        self.b = None

    def forpass(self, x):
        z = np.sum(x * self.w) + self.b # 직선 방정식을 계산합니다
        return z

    def backprop(self, x, err):
        w_grad = x * err # 가중치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합니다
        b_grad = 1 * err # 절편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합니다
        return w_grad, b_grad

    def activation(self, z):
        z = np.clip(z, -100, None) # 안전한 np.exp() 계산을 위해
        a = 1 / (1 + np.exp(-z)) # 시그모이드 계산
        return a

    def fit(self, x, y, epochs=100):
        self.w = np.ones(x.shape[1]) # 가중치를 초기화합니다.
        self.b = 0 # 절편을 초기화합니다.
        for i in range(epochs): # epochs만큼 반복합니다
            for x_i, y_i in zip(x, y): # 모든 샘플에 대해 반복합니다
                z = self.forpass(x_i) # 정방향 계산
                a = self.activation(z) # 활성화 함수 적용
                err = -(y_i - a) # 오차 계산
                w_grad, b_grad = self.backprop(x_i, err) # 역방향 계산
                self.w -= w_grad # 가중치 업데이트
                self.b -= b_grad # 절편 업데이트

    def predict(self, x):
        z = [self.forpass(x_i) for x_i in x] # 정방향 계산
        a = self.activation(np.array(z)) # 활성화 함수 적용
        return a > 0.5
```

```
neuron = LogisticNeuron()
neuron.fit(x_train, y_train)
```

```
np.mean(neuron.predict(x_test) == y_test)
```

```
0.8245614035087719
```

##매 에포크마다 훈련세트의 순서를 섞어서 손실함수를 더 줄이자

ex)

첫 번째 에포크)

1st. test_x -> 2nd. test_x -> 3rd. test_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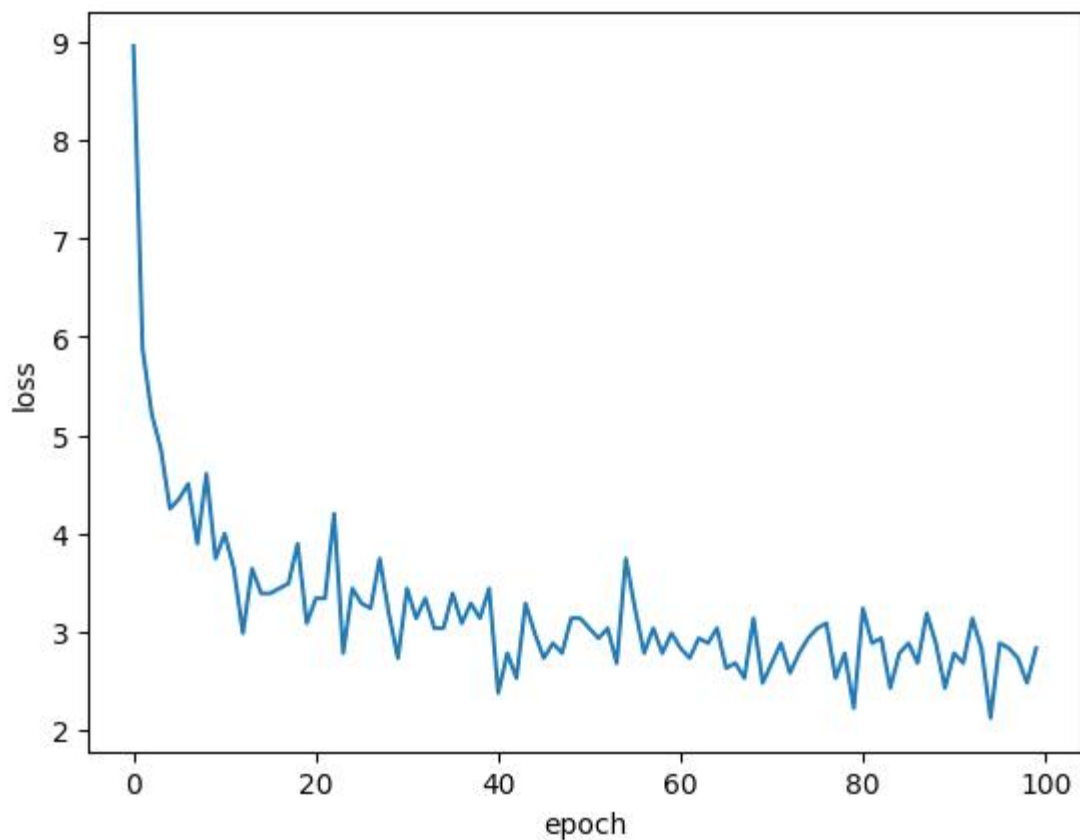
두 번째 에포크)

4th. test_x -> 1st. test_x -> 3rd. test_x

이렇게 랜덤하게 각각의 세트를 설정해서 진행하면,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 하는것보다 변화를 줄수 있다.

```
layer = SingleLayer()  
layer.fit(x_train, y_train)  
layer.score(x_test, y_test)
```

0.9385964912280702



=> 에포크를 진행할때마다 손실함수는 크게봤을 때 낮아진다.

사이킷런으로 로지스틱 회귀

```
✓ [233] from sklearn.linear_model import SGDClassifier
0초

✓ [241] sgd = SGDClassifier(loss='log_loss', max_iter=100, tol=1e-3, random_state=42)
0초
sgd.fit(x_train, y_train)
sgd.score(x_test, y_test)

⇨ 0.8333333333333334

✓ [243] sgd.predict(x_test[0:10])
0초

⇨ array([0, 1, 0, 0, 0, 0, 1, 0, 0, 0])

✓ [244] print(y_test[0:10])
0초

⇨ [0 1 0 1 0 1 1 0 0 0]
```

=> log_loss는 로지스틱회귀, 100은 반복에포크, tol만큼 손실함수값이 감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중단